
토론

다케우치 : 정효운 선생님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지적 융합·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보편학으로서의 호모 후마니타스의 사생학의 구축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야마자키 히로시 선생님은 전쟁 당사자의 원폭 책임론이라는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의 책임 혹은 슬픔으로서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일종의 보편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정효운 선생님은 그러한 보편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은 한국적인 호모 후마니타스의 사생학의 정립을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마자키 선생님은, 그것은 인류 전체의 슬픔, 책임 문제라고 하시면서도, 서양의 접근방법과는 다른, 일종의 동아시아가 가지는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큰 문제입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한 분 정도씩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 사생학 연구실의 에릭입니다. 정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이면서도 기독교 인구가 대단히 많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 내에서는 서양적인 생명관이 추상적·학문적 사상이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윤리관·가치관으로서도 대단히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한국적인 사생학 정립에 오히려 더 많은 복잡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존재가 한국에서의 안락사, 존엄사와 같은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논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효운 : 한국에는 전통적인 한국적 사고방식과 일제하 36년간의 일본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으로 인한 미국적 사고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차이가 있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생관에서는 불교의 영향이 강하다고 봅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있는, 어떻게 보면 글로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착목한 점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사생학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져 들어왔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한국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 경우, 한국에는 역시 사상적, 종교적으로 일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차이에 의해 한국적인 무언가 새로운 것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존엄사 문제는, 2009 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케우치 : 그러면 제가 야마자키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발표의 마무리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양식의 정치적·이성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분노나 슬픔 같은 감성적인 접근방법이라는 것이, 특히 일본 내지는 동아시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까?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요.

야마자키 :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좀 엉성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감성적이라는 것이 동양이나 동아시아의 전매특허도 아니고, 물론 서양, 서구의 틀 안에서든 핵 없는 세상을 호소함에 있어서 그러한 감성적인 측면을 살린 호소 방법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원폭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경험이 있고, 그에 대한 담론이 축적되어 있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살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핵 문제처럼 대단히 외교적 혹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쉬운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일본에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달성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와 같이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다케우치 : 그러면 이것으로 제 2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